“광주정신 널리 퍼지면 개도국 민주화 앞당겨 질 것”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광주인권상 수상자 오월정신을 말하다

4 바실 페르난도
(홍콩·2001년 수상자)

홍콩=이종행기자

아시아인권위 30여명 활동
방글라데시 사법부 독립 공헌
버마 정부 무력진압 실상 전파
국가 폭력에 유린당한
아시아인 인권 보호 앞장

지난달 22일 홍콩 구룡 반도 호만틴 지구 아시아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바실 페르난도 위원장(맨 오른쪽) 등 위원들이 AHRC의 활동사항을 설명한 뒤 미소짓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지난달 22일 오후 3시30분께 홍콩 구룡(Kowloon·九龍)반도 호만틴(Ho Man Tin·何文田)지구 20여 평(66.12㎡) 너비의 ‘아시아인권위원회’(AHRC·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사무실에선 위원들이 인도에서 자행되는 경찰의 고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심각하게 하고 있었다.

한 위원이 “인도 비하르주(Bihar州)에서 한 30대 남성이 구걸하기 위해 전직 판사의 집을 배회하다가 이웃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돼 7년간 모진 고문을 당한 뒤 불구가 됐다”는 보고를 했다.

이를 듣던 바실 페르난도(71·W.P.J. Basil Fernando) 위원장은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의견을 낸 뒤 각 위원들의 뜻을 물었다.

현재 인도에선 경찰의 무자비한 고문과 불법 구금이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다. 최근 국제인권기구 자료를 보면 인도에서 불법 구금에 따른 고문 피해자 수는 대략 1307건.

이들 중 상당수는 고문 경찰에 의해 고문을 받다가 사망하거나 거짓 자백에 따른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등 법률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위원들은 ‘고문에 의한 자백’이라는 법률적 지원과 합당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적 지원’을 하자는데 입을 모은 뒤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해 유엔특별보고관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기로 했다. 또 법률적 지원 아래 긴급 항소키로 했다. 위원들은 특히 인도에 파견 근무 중인 ‘AHRC’ 소속 인권활동가에게 연락, 이 남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바실 페르난도 위원장이 몸 담고 있는 ‘AHRC’는 군부와 경찰, 계급사회 등 사회적 부조리에 의해 인권을 유린당하는 아시아 여러 국가의 국민들에게 등대지기 역할을 하고 있다. ‘AHRC’ 소속 인권활동가 수는 30명. 10명은 홍콩에서, 나머지 20명은 필리핀·인도·파키스탄 등 8개 나라에서 활동 중이다.

이들의 역할은 경찰 탄압에 대한 감시 활동과 인권 유린 희생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 의료서비스 연계, 독재정부 감시 및 비판활동, 식량구호, 인권·민주화 교육 등이다.

이들 단체가 지난 20여년 간 이뤄낸 성과도 적잖다.

‘AHRC’는 방실라데시의 사법 체계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사법부의 독립을 요구하면서 군부의 재판 개입을 막는 것이었다. 또 인도·스리랑카 빈민층에 대한 지속적인 식량구호활동과 인도의 불평등한 계급제도인 카스트제도 타파를 외치고 있다.

특히 버마에선 지난 2007년 부정한 정권의 느닷없는 유가 인상이 민주주의를 향한 버마 민중의 민주화운동이 일었는데, 당시 군사정부는 무력 집압했다. 이때 군사정부는 자신들의 무력 진압을 합리화하기 위해 시위대에 폭력배와 친정부 무장단체인 스완아신(Swan-ar Shin)을 동원했는데, ‘AHRC’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버마 정부의 무력진압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공헌했다.

바실 페르난도 위원장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국민이 열악한 인권 상황에 처해 있다. 필리핀에선 인권 활동가들이 외압에 의 해 실종되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이 같은 일을 멈출 수 없다. 희생없인 민주·인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5·18 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 당하지 않았느냐. 5·18이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본보기가 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또 “광주시민들이 주도한 5월 항쟁을 접한 뒤 민주·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80년 광주의 정신이 널리 전파된다면 아시아 개도국의 민주화도 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golee@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1986년 설립 민간 단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亞 인권 유린 감시·구제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지난 1986년 설립된 민간 단체다.

아시아 법률가·인권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감시 및 비판이다.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파악, 국제적인 여론을 결집한 뒤 인권 침해를 받은 이들에 대한 구제활동도 하고 있다.

위원장은 바실 페르난도다. 그는 지난 1994년부터 2010년까지 16년 동안 아시아인권위원회 이사로 역임했다.

이 단체의 주요 활동은 ‘아시아 헌장’(Asian Charter)을 토대로 하고 있다.

아시아 헌장엔 ‘여러 아시아 국가는 헌법으로 인권을 보장한다. 이들은 국제 기구에 인권 보장을 비준한다. 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것과 달리 인권유린 실태는 심각하다. 아시아 여러 국가는 자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단체는 산하에 자매단체인 ‘아시아법률자산센터’(ALRC·the Asian Legal Resource Centre)를 두고 있다. ‘ALRC’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와 동등한 입장의 협의체다. ‘AHRC’와 ‘ALRC’는 모두 홍콩에 본부를 두고 있다.

‘AHRC’는 지난 2006년 ‘국제 실종자의 날’을 맞아 인권활동가에 대한 실종 현황자료를 발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AHRC’는 당시 정부에 의해 가장 많은 인권활동가들이 실종되는 나라로 스리랑카를 지목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지난 2007년 ‘인권 학교’(Human Rights School)를 연 뒤 아시아 각국에 필요한 인권활동가들을 양성하고 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5·18, 한국선 너무 과소평가”

자유·평등 중시하는 정부 들어서면 평가 달라질것

“민주주의는 희생 통해 얻은 것” 후손에 알려줘야

바실 페르난도 위원장

“5·18 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화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에 안주해선 안 된다. 민주주의를 얻기 위한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후손들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게 산자들의 역할이다.”

지난달 22일 홍콩 아시아인권위원회(AHRC) 사무실에서 만난 바실 페르난도(71) 위원장은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5·18을 겪은 세대들의 역할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희생을 통해 얻어낸 것이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며 “그래야만 (한국에) 민주화운동이 필요할 때 자기 스스로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5·18이 다른 아시아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미친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다. 한 미국인 교수가 5·18 당시 한국에 머물러 있다가 훗날 이를 토대로 한국의 민주화 과정 등을 엮은 책이 있다”며 “이 책은 필리핀·방글라데시·네팔 등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민주화운동을 위한 교재로 쓰이고 있다. 한국인들은 5·18을 너무 과소평가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5·18 왜곡·폄훼와 관련해선 “현직 대통령은 아버지가 과거 군대 리더였다. 5·18도 군부독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현 정부는) 과거 문제가 젊은 세대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왜곡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5·18에 대한 정부의 평가와 관련해선 “이는 정권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민주·자유와 이윤추구를 놓고 봤을 때 어느 것이 국익에 우선하는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윤추구가 국익의 우선이라면 5·18에 대한 평가는 다소 떨어지지 않겠느냐. 자유와 평등을 중요시하는 정부가 들어선다면 5·18 평가는 또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광주시의 인권 정책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윤장현 시장과 잘 아는 사이다. 인권에 상당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광주에도 인권관련센터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현재 광주에도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들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인권정책을 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들이 일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고 돈이 없어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 일이 광주에서 벌어지면 되겠느냐. 광주인권관련센터가 더욱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실 페르난도 위원장은 스리랑카 출신으로 스리랑카 대법원에 근무했다. 그는 베트남 난민구제 위원회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UN인권센터 캄보디아 사무국법률지원 책임자 등을 역임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